

경(敬)으로 본 제백석(齊白石, 1864~1957)과 서비홍(徐悲鴻, 1895~1953)의 사꺼

황은아*

〈차 례〉

1. 서론
2. 제백석과 서비홍의 생애와 사꺼
3. 공경(恭敬)
4. 화이부동(和而不同)
5. 결론

【국문초록】

중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제백석과 서비홍의 사꺼은 “지기 지교(知己之交)”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그 둘의 사꺼을 “지기 지교(知己之交)”로만 지칭한 것은 단편적인 면만을 본 것이다. 제백석과 서비홍 사이에는 31살의 나이 차이, 서로 다른 성장 환경, 대립하는 화풍 등 특별한 요소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한국철학과 박사과정

본고는 그 둘의 사림을 선진 유가 경전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경(敬)” 사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서비홍의 제백석에 대한 적극적인 희생과 베품이 주를 이루는 일화를 바탕으로 한다면 그것은 ‘윗사람’ 혹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로서의 “공경(恭敬)”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그것은 제백석의 서비홍을 향한 자애(慈愛)와 상호적 관계 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제백석과 서비홍의 마음[敬]과 행동[恭]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베풀었던 진정한 공경의 사림은 함께 그린 “합작화”에서 “화(和)”에 이르러, 서화의 이상적 경지인 “위이불범 화이부동[違而不犯, 和而不同]”을 이루었다.

주제어: 제백석, 서비홍, 경(敬), 합작화, 화이부동

1. 서론

‘우정(友情)’은 친구와 친구 사이의 정을 의미하며 두 명 이상의 사람 사이에서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중국에서는 예술가의 우정 중 제백석과 서비홍의 우정이 잘 알려져 있다. 제백석은 중국 근현대 전통주의 회화의 대표 화가이며, 화가로서는 처음으로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은 인물이다. 그는 늦은 나이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여 60세가 넘어서야 그 이름이 알려졌으며, 그 인생의 고비마다 그에게 영향을 준 인물들이 있었는데, 슈예량(薛良)은 제백석의 지기(知己)로 진사중(陳師曾)과 서비홍(徐悲鴻)을 꼽는다.¹⁾

1) 슈예량(薛良)은 현재 북경화원 전람부주임이다. 북경화원은 2020년 11월 13일 〈知己有恩〉전시를 개최하였고, 전시 개막식 당시 슈예량은 “제백석의 생전 친구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을 세 부류로 나눈다면, 은사님 두 분-호심원(胡沁園)과 왕개운(王閔運), 학생 두 명-서광(瑞光)과 매란방(梅

진사증과 서비홍은 시골 출신의 노화가(老畫家)인 제백석을 세상에 알린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진사증은 제백석 작품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고 제백석이 “쇠년변법(衰年變法)”과 “홍화묵엽(紅花墨葉)” 풍격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 하지만 그는 단명(短命)하여 그 사궐의 시간이 길지 못하였다. 또 한 명의 지기인 서비홍은 중국 화가 중 처음으로 유럽 유학을 다녀온 사실주의 화가이자 미술 교육자로서 ‘중국화개량론’을 제창한 중국 전통화 개혁의 선구자이다. 서비홍은 제백석의 예술성을 알아보고 인정하여 제백석을 대학교 교수로 초빙하고, 제백석의 작품을 해외 전시에 출품하며, 제백석의 화책을 출판하는 데 힘쓰는 등 제백석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데 힘썼다. 이외에도 제백석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편지 왕래를 통해 제백석을 세심히 살피는 등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제백석을 지원했다. 중국 격동의 시기, 중국 미술계가 전통주의와 사실주의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조우(遭遇)한 제백석과 서비홍은 서로 반대되는 예술 풍격과 교육 배경, 31살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사궐을 보여주었고 그들 우정과 사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 그 예로 슈에량(薛良)의 『知己有恩——齊白石的師友情緣』, 화티엔슈에(華天雪)의 『齊白石的知己:徐悲鴻』, 루잔산(陸占山)의 『畫壇知交燦耀雙星——徐悲鴻與齊白石的友誼』, 뤼위안쑤(羅元欣)의 『徐悲鴻和齊白石的知己之交——以北京畫院收藏的齊白石遺物為例』, 차이팡(才芳)의 『齊白石和徐悲鴻的友情』 등은 제백석과 서비홍의 우정을 주제로 한 연구이며, 이 외에도 장타오(張壽)의 『君子和而不同——徐悲鴻、齊白石交遊考略』, 마밍천(馬明宸)

蘭芳), 지기(知己)-진사증(陳師曾)과 서비홍(徐悲鴻)이다[薛良將齊白石「朋友圈」裏這六位重量級的人物分成了三組：兩位恩師——胡沁園和王罔運，兩個學生——瑞光和梅蘭芳，兩位知己——陳師曾和徐悲鴻.]”라고 하였다.

의 『齊白石對徐悲鴻的知遇之恩感戴終生』, 뤼위안쑤(羅元欣)의 『知己有恩--北京畫院藏徐悲鴻致齊白石信劄研究』, 쌍뚜쥐안(桑杜娟)의 『徐悲鴻“三請”齊白石』 등은 제백석과 서비홍 만남의 일화를 주제로 한 연구이다. 실제로 서비홍은 제백석의 예술세계를 알아보고 그 중요성을 간파하여 제백석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들의 관계는 서비홍의 적극적인 희생과 배품으로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제백석과 서비홍의 사귀이 단순히 “지기지교”로만 수식되어지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구심에서 시작하여, 그 사귀이 유가의 “경(敬)” 사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 고찰할 것이다.

2. 제백석과 서비홍의 생애와 사귀

제백석의 1933년 작품인 〈그림 1〉은 제백석이 자신과 자신의 예술을 알아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새긴 작품이다. 그리고 제백석이 지칭하는 은인(恩人)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지기(知己)”로 표현한 사람이 바로 서비홍이다.²⁾ 서비홍은 그 누구보다 제백석의 예술을 인정하고 지지한 인물이자, 제백석을 지금의 위치에 있게 한 인물이다.



〈그림 1〉 齊白石 知己有恩
2.2x2.3x3cm, 1933年.

2) 제백석은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이고, 나를 아는 이는 서군이네[生我者父母, 知我者徐君]”라고 했다. 이는 사마천(司馬遷)의 『관안열전(管晏列傳)』에서 관중(管仲)이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이고, 나를 아는 이는 포숙이다[生我者父母, 知我者鮑子也]”에서 착안한 것으로, 제백석은 서비홍에 대한 마음을 관포지교(管鮑之交)이 빗대어 표현하였다.

제백석(齊白石, 1864~1957)³⁾은 중국 화가 중에서 유일하게 인민예술가의 명예 칭호를 수여 받은 중국 근현대 회화를 대표하는 화가이다. 중국 후난성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그림은 26세, 전각은 34세가 되어서야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하였다. 잦은 병란(兵亂) 때문에 고향과 북경을 오간 그는, 1919년이 되어서야 북경에 정착했고, 당시 중국화 북파(北派)의 대가인 진사중의 조언으로 그림의 변화를 시도하는데 이를 ‘쇠년변법(衰年變法)’이라 한다. 이때 제백석은 서위(徐渭), 팔대산인(八大山人), 석도(石濤)를 비롯하여, 양주팔괴(揚州八怪), 조지겸(趙持謙), 오창석(吳昌碩)에 이르는 명청의 개성과 화가의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풍을 이끌어냈다.⁴⁾ 제백석은 전통주의자로서 중국 전통 문인화의 계보를 이었지만, 여타 보수적 성향의 화가들이 전통 회화 양식만을 고수했던 것과 달리, 중국 전통 회화의 현대적 변화를 추구하였다. 즉, 제백석은 전통 문인화를 계승하면서도 문인화의 낡은 형식을 타파하고, 민간의 전통미술을 계승하면서도 민간 미술의 저속한 요소들을 극복하였다고 할 수 있다.⁵⁾

서비홍(徐悲鴻, 1895~1953)⁶⁾은 중국 근현대를 대표하는 화가이

3)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제백석은 허약한 몸 때문에 어려서 농사일을 돕지 못하고 목장(木匠)일을 하였다. 제백석은 40세가 되던 1902년부터 1909년까지 다섯 번의 여행을 다녀오게 되는데 이것을 ‘오출오귀(五出五歸)’라고 하며, 제백석은 오출오귀를 통해 그림에 큰 영향을 받는다. 국립북경 예술전문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중일전쟁으로 고된 시간을 보냈다. 1945년 전쟁이 끝난 후 중앙미술학원 명예교수, 중앙문사연구관(中央文史研究館) 관원, 중앙문학예술계 주석단 위원, 중앙국화연구회 주석을 역임하고 1953년에는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았다.

4) 이광수, 「中國 근대전환기에서 傳統主義 화가의 繪畫觀-齊白石과 黃賓虹의 化론을 중심으로-」, 『文化史學』 第36號, 韓國文化史學會. 2011, p.144 참조.

5) 정연옥, 『제백석의 예술세계에 담긴 평화사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운대학교, 2019, p.24참조.

6) 서비홍은 가난한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 화가이자 훈장(訓長)인 아버지

자 미술 교육자이며 중국 근대미술의 혁신자이다. 중국 화가 최초로 유럽 유학을 다녀온 그는 중국화의 개혁을 주장했다. 서비홍은 1917년 당시 북경대학의 총장으로 있던 채원배(蔡元培, 1868~1940)의 초청으로 북경대학 화법연구회에 있었는데, 당시 북경대학은 신문화운동의 요람으로 『신청년(新靑年)』 등 진보주의 간행물을 발간하였다.⁷⁾ 서비홍은 신문화운동의 영향을 받았고 당시 중국화의 진부함을 지적하며 ‘서양회화가 필요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옛것에서 좋은 것은 지키고, 사라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승하고, 안 좋은 것은 고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여 채우고, 서양회화에 서 배울 것이 있으면 그것과 융화하자.⁸⁾

1919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난 서비홍은 서양의 사실주의 화풍에 깊게 빠져들었고 프랑스를 떠나기 전 『중국화개량론(中國畫改良論)』을 저술하였다. 중국으로 돌아와 상해예술대학, 중앙예술대학에서 강의하였고 1929년 북평대학 예술학원장 취임사에서 중국화의 혁신을 주장하였으며 중국 화가 중에서 제백석의 회화를 인정하였다.

제백석과 서비홍의 첫 만남은 1928년 11월 서비홍이 국립북평대학 예술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있을 때 이루어졌다. 서비홍은 그 당시 생동감 없이 옛것을 그대로 답습하기만 하는 중국 문인화를

에게 어려서부터 글과 그림, 미술 교육적 자질을 배웠는데 열 살쯤 되었을 때 그의 그림 실력은 이미 상당하였다. 해방 이후 중국 정부의 인정을 받아 중앙미술학교 원장과 전국 미술협회 주석을 역임하였고 그림 그리기를 쉬지 않았다. 58세의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생을 마감하였다.

7) 장준석, 「徐悲鴻의 美術教育思想에 대한 研究」, 『조형교육』 第18輯, 한국조형교육학회. 2001, p.114.

8) 徐悲鴻, 『中國畫改良之方法』, “古法之佳者守之, 垂絕者繼之, 不佳者改之, 未足者增之, 西方繪畫之可采者融之”

규탄하며 중국화의 혁신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서양화의 기법을 배워 그것과 중국 민족회화의 우수한 전통을 융합하여 참신하고 생기 넘치는 중국화를 창조하자는 것이었다. 중국 전통 문인화의 고루한 습관을 규탄하던 서비홍에게 제백석의 고도로 정제되고 개괄된 중국화의 특징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생기가 넘치는 작품은 이상적이었고, 그로 인해 제백석을 북평대학 예술학원 교수로 초빙하기에 이른다. 서비홍은 당시 이미 64세의 고령 화가였던 제백석의 집에 직접 방문하여 북평대학 교수로 외주기를 부탁하였다. 제백석의 화실에서 첫만남을 가진 두 사람은 그림, 시(詩), 문장(文章), 전각(篆刻)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마치 원래부터 오래된 친구인 것 같을 정도였다. 그러나 제백석은 서비홍의 초빙 부탁에 재차 거절하였고 그 이유는 ‘한 번도 서양식 교실에 들어가본적이 없고, 학생을 가르쳐본 적도 없다’는 것이었다. 서비홍은 이에 ‘가르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학생들에게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모든 수업에 제가 동행하겠습니다’라며 강의를 부탁하였고 결국 응답을 얻어냈다. 제백석 작품의 우수성을 알아본 서비홍이 제백석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찾아가 부탁하여 제백석이 초빙을 허락했다는 일화는 “초려삼청(草廬三請)”으로 불린다. 제백석은 그림 2)에 서비홍의 “초려삼청” 일화를 그려내었다.

삼고초려는 거절할 수가 없는데, 이 하찮은 노화가이라.

인간 세상의 신의 힘을 굳게 믿으니 백피송(白皮松)을 바깥은 어두운 바람이 부네.

하루 아침에 보이지 않아 생각하게 하네. 다시 만나 편안할 날은 기약이 없으니, 바다 위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가득 차면, 지팡이 짚고서 꿈을 안고 서회를 찾아가야지.⁹⁾

9) “草廬三請不容辭，何況雕蟲老畫。深信人間神鬼力，白皮松外暗風吹。一朝不

〈그림 2〉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오랜 친구를 찾아 떠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그림 속 노인은 바로 제백석 자신이고, 그가 찾아 떠나는 친구는 서비홍이다. 이는 제백석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백석의 작품 중 자화상은 매우 희소하다는 점에서 「심구도」가 특별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서비홍은 제백석의 북평대학 재임 당시 일전의 약속대로 제백석의 수업에 동행했을 뿐 아니라, 제백석 대신 강단에 서고 채점을 할 때에도 제백석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제백석이 학생 그림을 두고 ‘잘 그렸네’ 하면 점수를 서비홍은 甲점을 매기고, ‘그림이 그리 저력 괜찮네’ 하면 乙점을 주었다.¹⁰⁾ 이는 학력도 없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제백석을 존중한 선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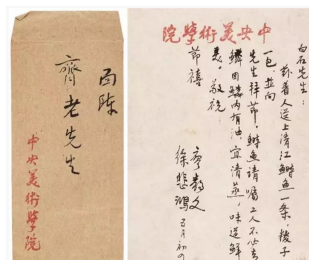
1938년, 교학정책 개혁으로 인해 서비홍은 북평대학교를 사임하고 남쪽의 중앙대학으로 가게 되었다. 그로 인해, 북평에 남은 제백석과의 거리는 수천 킬로미터로 멀어졌지만, 두 사람은 편지로 긴밀하게 왕래하며 더 깊은 우정을 쌓아갔다. 편지의 내용은 모 학교에 초빙한다는 이야기, 제백석 화책 출판에 관한 이야기, 안위를 묻는 이야기 등 평범한 내용들이다. 그림3)은 단오절을 앞두고 서비홍이 전어, 쫄쫂[粽子] 등의 명절 선물을 제백석에게 보내며 쓴 편지이다. 편지에는 전어 조리법이 적혀있는데, 이는 서비홍의 제백석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림 2〉 齊白石, 尋舊圖, 151.5x42cm, 연도 미상.

見令人思、重聚陶然未可期。上清風明月滿、杖藜扶訪徐熙。”

10) 黃宸炎, 「齊白石, 徐悲鴻, 張大千的互“補”往事」, 『中國老年』, 2021, p.34.



〈그림 3〉 廖靜文과 徐悲鴻이 쓴 편지와 편지봉투, 北京書院 소장

제백석 역시 서비홍을 각별히 생각하였다. 서비홍은 주기적으로 제백석의 그림을 구입했는데, 제백석은 자신의 작품 중 걸작이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고 반드시 서비홍에게 보냈다. 서비홍이 그렇게 평생 수집한 제백석의 작품은 80여 점이다.¹¹⁾ 또한 서비홍이 자주 사용하던 인장(印章)인 「탄토대

황(呑吐大荒)」, 「강남포의(江南布衣)」와 「서비홍(徐悲鴻)」은 모두 제백석이 각(刻)하여 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백석 역시 순수한 마음으로 서비홍을 존중하고 아꼈음을 알 수 있다.

서비홍의 중국화와 중국화 교육의 개혁을 향한 의지는 꺾인 적이 없었다. 그는 굶힐 줄 모르는 성격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불안정한 삶을 살았다. 그런 와중에서도 서비홍은 제백석을 세상에 알리려 온 힘을 다해 노력하였다. 화책(畫冊)을 출판하고, 학교에 출강하도록 독려했으며, 중국, 독일 전시회에 제백석의 그림을 추천하고 명사들에게 제시(題詩), 제자(題字)를 부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백석을 알리는 데 힘썼다. 당시 이미 70세가 넘는 제백석이 그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은 버거운 일이었기에, 서비홍은 이 모든 것을 존중하며 인내심 있게 문제를 해결해주었고, ‘저에게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선생님을 먼저 모시겠습니다[鴻有所謀, 必欲先生俱]’라고 약속하였다.¹²⁾ 서비홍이 제백석을 위해 했던 일 중 대표적인 것으로 ‘『제백석화책(齊白石畫冊)』 출판’을 들 수 있다.

11) 서비홍이 평생 모은 제백석의 작품은 서비홍 사망 후 모두 국가에 기증하였으며, 현재 서비홍미술관에 소장, 전시중이다.

12) 羅元欣, 「徐悲鴻和齊白石的知己之交-以北京書院收藏的齊白石遺物爲例」, 『齊白石研究』 第六輯, 2016, p.41.

제백석은 당시까지 정식으로 자신의 화집을 출간한 적이 없었다. 그저 지인들에게 증정하기 위하여 본인의 돈을 들여 인쇄한 200권이 전부였다. 서비홍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백석의 예술을 알리기 위하여 1930년부터 1932년까지, 중화서국(中華書局)의 책임자인 서신성(舒新城), 오겸명(吳廉明)에게 『제백석화집』 출간을 추천하였다. 서비홍은 편집, 서문까지 직접 도맡아 하며 사비(私費)로 제백석의 첫 번째 화집을 출간하였다.¹³⁾ 1936년, 서비홍은 “중국 금일지명화가(中國今日之名畫家)”에서 제백석의 회화 예술을 추양했다.¹⁴⁾

제백석의 장점은 색채가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망설임이 없고 붉은색이 많고 녹색이 적으며 성격이 고상하다는 것이다. 곤충 묘사는 옛사람의 실력을 뛰어넘으며, 새우, 게, 병아리, 파초는 먹으로 묘사하는데 그 몸체가 정밀하고 순수하면서도 독창적이다.¹⁵⁾

1937년 노구교사변(盧溝橋事變)과 중일전쟁으로 나라 안이 혼란이 빠졌을 당시에 서비홍은 제백석에게 편지로 안부를 물었고, 전쟁 승리 이후에는 중경(重慶)에서 편지로 승리 소식을 전하며 제백석의 건강과 안위 묻기를 잊지 않았다. 얼마 후 서비홍은 제백석의 답장을 받았는데, 편지에는 아래와 같이 쓰여 있었다.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님이요, 나를 아는 사람은 서군이네.¹⁶⁾

13) 孟紅, 「徐悲鴻與齊白石: 詩意情深的畫壇忘年交」, 『山西老年』, 2020年 5月, p.17참조.

14) 上揭書.

15) 齊白石之長處, 在有色彩, 往直前, 無所顧忌, 惟一多紅而少綠, 或其性格所尚. 寫昆蟲突過古人. 其鰕, 蟹, 雉鷄, 芭蕉, 以墨寫者, 俱体物精微, 純然獨創.

16) “生我者父母, 知我者徐君.”

서비홍은 사회적 지위나 학문적 소양이 제백석보다 뛰어났지만, 늘 제백석을 어른을 모시듯 공경하고 그를 알리기 위해 힘썼다. 위를 통해 제백석과 서비홍의 사궤가 ‘지기지교’로 일컬어지게 된 이유는 첫째, 실제로 서비홍이 제백석의 예술을 알아보고 이해하고 적극 지지하였기 때문이고 둘째, 제백석이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이고, 나를 아는 이는 서군이네[生我者父母, 知我者徐君]”라고 하였으며, 셋째, 제백석의 〈지기유은(知己有恩)〉 전각 작품을 알 수 있다.

3. 공경(恭敬)

제백석과 서비홍의 사궤를 단순히 ‘지기지교(知己之交)’로만 설명하는 것은 단편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근현대 미술의 양극단(兩極端)을 대표하는 제백석과 서비홍이라는 두 예술가의 사궤, 제백석의 예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서비홍의 희생과 배품은 유가의 ‘경(敬)’ 사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유가의 ‘경’ 사상은 시대에 따른 유가와 유학자들의 연구가 있었고, 그에 따른 함의의 변천으로 발전되어 온 사상이다. “경천(敬天)”이라는 종교적 의미로 시작된 ‘경’은, 귀족계층과 아랫사람의 윗사람에 대한 가정윤리, 더 나아가 지위가 낮은 사람의 지위가 높은 사람에 대한 정치관계와 귀족 간 교제 활동에 운용되었다. 그중에서도 공자는 전통적 의미의 ‘경’ 관념을 개조하고 창신하여 ‘경’이 유학 사상 체계의 중요한 범주가 되게 하였고 ‘경’의 의미와 외연은 천인관계, 인간관계뿐 아니라 개인의 심신수양 관계 및 사회에서의 직무를 대하는 태도와 행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¹⁷⁾ 선진시

17) 張曉瓊, 「先秦儒家“敬”論研究」, 博士學位論文. 西北大學, 2016, p.17참조.

대부터 많은 변천을 거친 ‘경’은 인, 의, 예 등 유학 사상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선진 유가 경전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공자 사상의 핵심이었거, 공자 스스로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했다.¹⁸⁾

‘경(敬)’자의 기원을 살펴보면, 최초의 ‘경’자는 서주(西周) 청동기인 하존(何尊)¹⁹⁾에서 보인다. ‘경’은 하·상·주 3대의 종교 제사 기록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늘[天]과 사람[人]의 소통 중 사람이 천제(天帝) 앞에 섰을 때 생기는 두려움과 경건의 정감(情感)이다.²⁰⁾ 원시 종교의 예악(禮樂)은 표면적인 의식이나 제도가 아닌 자연질서와 인륜질서의 경외(敬畏)와 존중(尊重)을 내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예악이 상징하는 것은 일종의 질서였으며, 그 질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사람의 예의(禮儀)에 대한 경외와 존중이었다.²¹⁾ 이렇듯 ‘경’은 ‘예(禮)’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예기』의 「곡례」에서는 하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단정하고 엄숙하여 무언가 생각하는 것같이 하며, 말을 안정감 있게 하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²²⁾

정호(程顥)는 毋不敬을 “경(敬)함이 없으면 상제(上帝)를 대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청대 장백행(張伯行, 1651~1725)은 “이는 바로 『예기』의 毋不敬(공경하지 않음이 없음)을 말하여 하

18) 권혁석, 『《尙書·堯典》을 단초로 삼아 고찰한 공자의 ‘敬’사상』, 『中國文化研究』 第6篇, 2005, p.23참조.

19) 『何尊銘文』: “嗚呼! 爾有唯小子, 亡視於公氏, 有髡於天, 徹命, 敬享哉!”

20) 俞婷婷, 「孔子“敬”思想探微」, 『青年文學家』 第24期, 2020, p.50참조.

21) 上掲書, p.51 참조.

22) 『禮記』 「曲禮」: “毋不敬, 儼若思, 安定辭, 安民哉!”

늘을 섬기는 뜻을 미루어 밝힌 것이다”라고 하였다.²³⁾ 즉, ‘경’의 초기 의미는 하늘의 주재(主宰)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이며, 이 ‘경’은 경외(敬畏)의 성격을 띄고 있다. 공자 이전 “경”과 “예”의 관계는 주로 상층 귀족에게 국한된 것이었지만,²⁴⁾²⁵⁾ 주(周)나라의 질서체계가 무너짐으로 각 계층에 보편적 가치가 생겨났고, 공자는 ‘경’의 초점을 천명(天命)과 귀신에 대한 경외(敬畏)에서, 사람을 섬기는 것[事人]으로 전환시켰다.

계로(季路)가 귀신(鬼神) 섬기는 일을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살아있는 사람을 잘 섬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귀신(鬼神)을 섬기겠는가?”²⁶⁾

공자는 귀신을 섬기는 것보다 살아있는 사람 섬기기를 더 중시했고, ‘예(禮)’는 외적인 사회 질서이자, ‘경’을 핵심으로 하여 부모, 형제, 임금을 대함에 있어서 모두 공경하는 것이 되었다. ‘경’이 없는 ‘예’는 형식에만 그칠 뿐이다. ‘경’의 이러한 심리적 감정의 주입은 ‘예’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예’를 외적 의식 규범에서 내적 도덕으로 전환시켜 ‘경’의 실질적 정신 작용을 두드러지게 했다.²⁷⁾

공경은 禮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를 공경하면 자식들이 기뻐하고, 그 형을 공경하면 아우들이 기뻐하고, 그 임금을 공경하면 신하들이 기뻐하니, 한 사람을 공경하면 千萬 사람이 기뻐한다.²⁸⁾

23) 『近思錄集解』「卷之四」: “毋不敬, 可以對越上帝.”

24) 『春秋左傳』「僖公十年」: “禮, 國之幹也, 敬, 禮之興也, 不敬則禮不行, 禮不行則上下昏, 何以長世.”

25) 『春秋左傳』「成公十三年」: “禮, 身之幹也, 敬, 身之基也.”

26) 『論語』「先進」, “季路問事鬼神. 子曰, 未能事人, 焉能事鬼?”

27) 俞婷婷, 「孔子“敬”思想探微」, p.51참조.

28) 『孝經』「廣要道」: “禮者, 敬而已矣. 故敬其父, 則子悅; 敬其兄, 則弟悅; 敬其君, 則臣悅; 敬一人, 而千萬人悅.”

공자의 ‘경’은 개인 가정 내에서의 ‘경’, 혈육간의 정으로 발생하는 관계 측면의 ‘경’,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 사이의 ‘경’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사회 구성원간의 ‘경’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평등한 예의(禮儀)로 표현되었는데,²⁹⁾ 자하(子夏)가 “군자가 경신(敬愼)하여 과실(過失)이 없으며, 남과 사귄 때 공손하고 예가 있으면 세상 사람이 모두 형제가 될 것이다[君子敬而無失, 與人恭而有禮. 四海之內, 皆兄弟也]”³⁰⁾고 한 것은 인관관계에 있어서 공경과 예로써 평등한 태도로 모든 사람을 존경한다면 ‘경’으로써 인간 관계에 활력과 온정을 불어넣게 된다는 의미이고, ‘경’이 가지고 있는 평등한 성격을 드러낸다. 그 결과 ‘경’은 공자 사상체계를 관통하는 실천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인(仁)”, “효(孝)”, “예(禮)”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공자의 “인(仁)”은 군자의 행위를 통해서 실천된다. 수신(修身), 정무(政務),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군자의 사회 활동은 “경”으로 실천될 수밖에 없다. “효(孝)”의 경우, 부모가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 가지고 있어야 할 존엄,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의 정감과 태도는 모두 ‘경’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禮)’의 내재적 규범과 외재적 사회 질서 유지는 ‘경’을 통해서만 관철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은 공자의 사상 체계를 관통하는 실천적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충(忠)”, “용(勇)”, “공(恭)”, “신(信)” 등 공자의 도덕 원칙들과 함께 전개되어, 그 범위가 더 구체적이고 넓어지게 되었다.³¹⁾ 그 예로 공자 시대부터 ‘공(恭)’과 ‘경(敬)’은 함께 쓰였는데 그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29) 張曉瓊, 「先秦儒家“敬”論研究」, 2016, p.60 참조.

30) 『論語』「顏淵」

31) 張文瀚, 『孔子思想體系中的“敬”研究』, 碩士學位論文, 河南大學, 2010, p.40 참조.

뽕나무와 가래나무에 대해서도 반드시 공경해야 하리니, 바라보면 아버지 아닌 것이 없고, 그리워하는 것은 어머니 아닌 것이 없다.³²⁾

공경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니, 진실로 백성의 군주로구나.³³⁾

(제사가 없어) 공경할 필요가 없는 장소에서는 재계하지 않는다.³⁴⁾

앉고 일어서는 것을 공경스럽게 하고, 말하는 것은 믿음을 우선으로 해야하며 행동도 필히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³⁵⁾

‘공’은 용모[貌]를 뜻하는데, 『서경』 「홍범」과 『춘추번로』 「오행오사」에서 “용모는 공손해야 한다[貌曰恭]”고 하였고, 공영달(孔穎達)은 『서경』 「무일(無逸)의 “장엄하고 공손하며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嚴恭寅畏]”에서 정현(鄭玄)의 공(恭) 해석을 인용하여 “용모가 바른 것이 공이다[貌正曰恭]”이라 하였다.³⁶⁾ 『예기』 「소의(少義)에서 “손님을 접대할 때는 용모의 공손함을 중시하고 제사를 지낼 때는 마음의 경의를 중시하라”³⁷⁾고한 것에서 ‘공’은 용모[貌], ‘경’은 마음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⁸⁾ 즉, ‘공’은 ‘경’의 외재적 표현이며, ‘경’은 ‘공’을 통해 전달된다. 전국시대 이래로 “공경”이라는 말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고, 특히 『맹자』의 ‘경’은 ‘공경’의 의미로 풀이된다.

32) 『詩經』 「小雅」: “維桑與梓, 必恭敬止, 靡瞻匪父, 靡依匪母”

33) 『春秋左傳』 「宣公二年」: “不忘恭敬, 民之主也.”

34) 『禮記』 「祭統」: “非有恭敬也, 則不齊也.”

35) 『禮記』 「儒行」: “其坐起恭敬, 言必先信, 行必中正.”

36) 袁田田, “恭敬”, 一詞的發展, 『科程研究教育』 第26輯. 2012, p.16 참조.

37) 『禮記』 「少義」: “賓客主恭, 祭祀主敬.”

38) 『설문해자』에서 말하는 “공”과 “경”의 의미는 모두 엄숙함[肅]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의미에 변화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공”은 마음에서 용모의 의미로, “경”은 용모에서 마음의 의미로 변화되었다.

정리하자면, 유가의 ‘경’은 공자 사상체계를 관통하는 도덕규범이자 인륜 도덕의 실천이다. ‘공경’은 ‘경’의 외재적 표현과 내재적 마음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대상(對象)을 향한 ‘경’의 마음을 “행위”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백석과 서비홍은 31살의 나이 차이와 성장 환경 및 화풍(畫風) 등의 차이를 넘어서는 관계였다. 둘의 관계를 유가의 인륜도덕 ‘경’ 대상의 범주에서 표현하자면,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敬長]”이다.

先王이 天下를 다스리는 법칙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덕이 있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귀한 자를 귀하게 여기고, 노인을 귀하게 여기고,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는 先王이 天下를 정하는 법칙이다.³⁹⁾

서비홍이 제백석을 처음 만났을 때, 서비홍은 33세, 제백석은 64세였다. 서비홍은 자신 나이의 2배이자 부친보다 10살이나 많은⁴⁰⁾ 노화가를 보았을 때 어른을 대하는 “공경”의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나이가 배가 많으면 아버지를 모시듯 공경하고, 10년이 많으면 형을 모시듯 공경하며, 5년이 많으면 어깨를 나란히 하여 약간 뒤처지게 따라간다.⁴¹⁾

서비홍의 제백석을 향한 언행은 어른을 대하는 ‘공경’으로 설명

39) 『禮記』「祭義」: “先王之所以治天下者五, 貴有德, 貴貴, 貴老, 敬長, 慈幼, 此五者先王之所以定天下.”

40) 서비홍의 아버지인 서달장(徐達章)은 1874년생으로, 제백석(1864년 출생)보다 10살이 어렸다.

41) 『禮記』「曲禮上」: “年長以倍則父事之, 十年以長則兄事之, 五年以長則肩隨之.”

할 수 있으며, 위의 『예기』「곡례하」 구절처럼, 마치 아버지를 모시는 것과 같은 “공경”이었다. 제백석의 건강을 해칠까 마차로 출퇴근을 도운 일, 수업 시간에 본인이 강단에 선 일, 전쟁 중에도 편지로 안부를 묻고 쑹즈(粽子)를 보내고, 생선을 보내면서 요리법까지 적어서 보낸 일, 미술 분야에서 가장 높은 월급을 받던 자기 자신보다도 제백석이 더 높은 월급을 받도록 한 일 등은 제백석을 윗사람으로 대하여 그의 신체 건강뿐 아니라 그 마음과 명예까지 꼼꼼히 살핀 “공경”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 사이의 공경” 즉, “같은 화가로서의 공경”으로 볼 수 있다. 자하가 말한 “군자가 경신(敬愼)하여 과실(過失)이 없으며, 남과 사귄 때 공손하고 예가 있으면[君子敬而無失, 與人恭而有禮]”⁴²⁾은 ‘경’이 가지고 있는 평등한 성격을 드러내는데, 서비홍은 제백석을 한 명의 화가이자, 중국화 개혁의 대표인 자신과 대립적 위치에 있는 전통화의 대표로서, 독립적이고 평등한 존재로서 공경했다는 것이다. 비록 서양화와 전통화라는 기법과 화풍이 양극단에 있는 두 사람이었지만, 서비홍은 옛것을 맹목적으로 답습하는 것이 아닌, 전통주의 안에서도 창신을 꾀했던 제백석의 작품을 높이 평가했다. 청말민초(清末民初) 격동의 시기에 큰 변혁을 겪고 있던 중국 미술계의 양극단에서 외로운 길을 함께 걷는 화가를 공경하였음은, 그가 더 잘 되기를 그가 더 건강하기를 그가 더 잘 그리기를 바라는 마음[敬]이 행동[恭]으로 전달된 것이다.

모종삼(牟宗三, 1909~1995)⁴³⁾은 “밝은 지혜를 다하는 것은 덕

42) 『論語』「顏淵」

43) 모종삼에 따르면 중국 사상에서의 우주관의 중점은 생명과 덕성이며, 그 출발점 혹은 나아간 길은 경천애민(敬天愛民)의 도덕실천이다. 이것은 인(仁)의 실천으로 성인이 되는 도덕실천이기도 하다. 그는 『중용』의 ‘도와 덕’ 개념의 발판이 우환의식에 있다고 보고 우환의식을 유학에서 덕성 실천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주요 현상으로 본다. 이를 통해 그는 우환의

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했는데,⁴⁴⁾ 그는 덕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 유학에서 나타나는 ‘창조성’이라고 했다. 즉, 인간의 “손발로 도구를 창조하며 시인은 창작 재능이 있기에 시와 노래를 창조”⁴⁵⁾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가진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를 통해 잘 닦아나가 사회에서 실현하는 것이며 이것은 도덕적 책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⁴⁶⁾ 모종삼의 견해로 본다면 제백석과 서비홍이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아 사회에서 실현한 점은 모두 ‘덕을 공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은 일방적 작용이 아니라, 주체와 대상간 상호적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분열된 당시의 중국 사회에서 화풍과 사상 모두 양극단에 있던 두 화가가 덕을 공경하며 한 화폭에서 ‘화(和)’를 이루었음은 주목할만한 일이며, 그것은 ‘경’의 높은 경지인 ‘화경(和敬)’을 의미한다.

4. 화이부동(和而不同)

춘추 전국 시기 주나라 질서 체계의 분화로 인해 유가의 ‘경’ 사상이 “경천(敬天)”에서 인륜(人倫) 도덕의 범주가 되었다면, “화

식을 통치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넓히며 우환의식으로써 인간은 자연스레 본성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봤다. 즉 우환의식은 통치자만의 감정이 아닌, 만인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심리상태가 됐다. 안희정, 「不安과 憂患意識의 책임론-자기 이해의 지각 단계를 중심으로-」, 『儒教思想文化研究』 第56輯, 2014년6월, p.483 참조.

44) 모종삼著, 김병채外譯, 『모종삼 교수의 중국철학 강의』, (서울 예문서원), 2011, p.54.

45) 위의 책, p.63 참조.

46) 안희정, 「不安과 憂患意識의 책임론-자기 이해의 지각 단계를 중심으로-」, 『儒教思想文化研究』 第56輯, 2014년6월, p.485.

(和)”는 당시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유가의 대표적인 사상 중 하나이다. 순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 시대 유가들은 하늘의 도를 완결된 상태로 여기며, 인간의 도덕적 근거로 설정하고 “화” 사상을 하늘의 도(道)와 긴밀하게 관련시킨다.⁴⁷⁾

하늘의 도가 각기 성(性)과 명(命)을 바르게 하여 태화(太和)하고 보존하고 합한다.⁴⁸⁾

『설문해자』에서는 “화(𠂔)”를 “서로 응한다[相應] 구(口)를 따르고 화(禾)가 소리이다.”⁴⁹⁾고 하였고, 곽말약(郭沫若, 1892~1978)은 『갑골문자연구(甲骨文字研究)』 「석화언(釋𠂔言)」에서 𠂔와 𠂔를 고금자(古今字)⁵⁰⁾로 여겨, “노래로 화답한다[唱和]”는 의미인 和『와 조화(調和)의 의미인 𠂔는 『설문』에서는 다른 뜻이었으나, 𠂔는 점차 없어지고 和를 사용하게 되었다⁵¹⁾고 하였다. 和의 갑골문에 나타나는 𠂔은 『설문해자』에서 “대나무로 만든 관악기로, 세 개의 구멍이 있으며 여러 소리를 조화롭게 한다”고 하였고, 和의 옛 글

47) 이철승, 「선진 유가에 나타난 ‘어울림’ 사상의 논리구조와 현실적 의미」, 『동양철학연구』 제46집, 2006, pp.77-82참조.

48) 『周易』「乾卦」: “乾道變化, 各正性命, 保合太和.”

49) 『說文解字』「卷二」: “𠂔, 相應也。從口禾聲.”

50) “고금자(古今字)는 한대(漢代) 경학(經學) 연구자들로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문헌상으로는 동일한 어휘이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서로 다른 문자 부호로 표기되는 소위 同詞異字 현상을 나타낸다.”, 오제중, 「段玉裁 〈說文解字〉의 古今字 이론 고찰」, 『中國言語研究』 第73輯, 한국중국어학회, 2017, p.142.

51) 郭沫若, 『甲骨文字研究』, (香港:1976), p.89, “說文和𠂔異字. 和在口部, 曰相應也. 从口禾聲. 𠂔在龠部, 曰調也. 从龠禾聲. 讀與𠂔同. 是許以唱和爲和, 以調和爲𠂔. 然古經傳中 二者實通用無別, 今則𠂔廢而和行.”, 차민경,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화(和)’의 세계관과 상생에 관한 소고」, 『儒學研究』 第50輯,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0, p.271 재인용.

자가 齋이므로, 和에는 “조화(調和)”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화(和)”는 단일한 존재가 아닌, 둘 이상의 관계가 잘 어우러지는 상태를 나타낸다.

“경”은 주제와 객체 간의 상호 작용이며, 단방향적 의무가 아니라 상하 사이에 공통적으로 지켜야할 준칙이다.⁵²⁾ ‘경’ 역시 그 상호작용이 균형을 이룬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여 “화(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데⁵³⁾ 제백석과 서비홍은 합작화(合作畵)를 통해 그것을 이루었다.

『논어』「자로」에서 “군자(君子)는 조화(調和)를 이루되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 않으며, 소인(小人)은 부화뇌동하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⁵⁴⁾고 하였는데 손과정(孫過庭)은 『서보(書譜)』에서 서화(書畵) 창작에 대하여 “어긋나되 침범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지만 같지 않다[違而不犯, 和而不同]”고 하였다. 이것은 서화(書畵)의 “변화(變化)”와 “화해(和諧)”에 대해 서술한 것으로, 변화(變化)를 중시해야하지만, 서로 부딪히면 안 된다는 뜻이다.⁵⁵⁾ 합작화는 중국 고대 문인들의 교우(交友) 방식이었다. 군자 간의 교제는 그 목적을 세속적인 것에 두지 않고, 오로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신적 교류에 관심을 두었으며 공통된 절조와 취미가 있는지, 동일한 행동방식이 존재하는지, 정신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⁵⁶⁾ 이 예술적 관점은 문인화가들이 소통과 교류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작품에 대한 공통된 생각을 발견하고 그려

52) 梅珍生, 「論孟子的禮學思想」, 『湖南大學學報』第2期, 2003, 張曉瓊, 「先秦儒家“敬”論研究」, 博士學位論文, 西北大學, 2016, p.164재 인용.

53) 張曉瓊, 「先秦儒家“敬”論研究」, 2016, p.165 참조.

54) 『論語』「子路」: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

55) 法蘇恬, 「違而不犯 和而不同——談書法藝術中的“變化”與“和諧”」, 『中國書畫』第8輯, 學院文萃, 2008, p.105 참조.

56) 洪曉麗, 『和而不同——中國畫合作畫研究』, 碩士學位論文, 深川大學校, 2019, p.6 참조.

내는 합작화의 최고의 경지이다. 다시 말해 합작화는 화가와 화가 간 정신적 교류의 결과물로서 먼저 그린 사람의 의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본심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근현대 합작화는 경진화파(京津畫派)⁵⁷⁾, 한지우사(寒之友社), 영남화파(嶺南畫派) 등이 대표 화파이며, 이들은 합작화를 우정과 필묵의 표현으로 삼는 것으로 심미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⁵⁸⁾ 리쩌호우(李澤厚, 1930~2021)가 『화하미학(華夏美學)』에서 “예술과 상황은 감정과 경치의 융합을 떠날 수 없다”고 하였듯이 화가들이 표현하는 것은 사회 환경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 그들의 목표와 표현방식에는 심



〈그림 4〉徐悲鴻, 죽석영묘도(竹石靈貓圖), 白石補蜻蜓, 136x69cm, 1944年.

미적 공감대가 있으며, 상호경쟁과 상호포용은 합작화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 그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바가 그림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합작화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⁵⁹⁾

서비홍이 북평으로 돌아온 후 제백석과 서비홍 두 사람은 합작화 그리기를 즐겨하였다. 보통은 서비홍이 동물을 그리고 제백석이 풍경을 보충하는 형식이었다.⁶⁰⁾ 〈그림 4〉는 1944년 중일전쟁 당시에 그려진 작품인 「죽석영묘도(竹石靈貓圖)」이다. 서비홍이 그림을 그리고 제백석이 잠자리를 추가하여

57) 경진화파는 금성(金城), 제백석 및 우수한 중국화 화가를 대표로 한 북경, 천진 지역에서 활동하던 작가들의 유파(流派)로, “풍아를 주창하고, 국가의 우수한 문화를 보존하자[提倡風雅 保存國粹]”, “자연을 배워 새로운 의경을 창조하자[師法造化 以創新意]”를 주장하며 당시 신(新)과 구(舊)의 논쟁이 오가는 중국 화단(畫壇)에 이론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58) 洪曉麗, 『和而不同——中國畫合作畫研究』, p.1 참조.

59) 上揭書, p.19 참조.

60) 장대천(張大千, 1899~1983)과도 함께 그림을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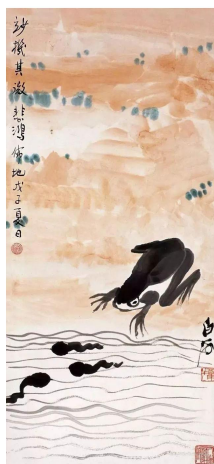
그린 형태이다. 이 작품은 대나무숲을 배경으로 커다란 바위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몸을 구부리고 꼬리를 치켜올린 채 앞을 노려 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고양이의 눈빛을 따라가보면 잠자리 한 마리가 무심하지만 고양이를 놀리듯 날아다니고 있다. 이 작품에서 흥미로운 것은 중국화의 신운(神韻)과 서양화 기법의 절묘한 조합으로, 서비홍의 서양화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서비홍은 고양이의 얼굴과 몸동작, 수염의 모양 등으로 고양이의 심리상태를 표현했으며, 서양화의 빛 효과와 투시를 이용하여 고양이의 눈을 표현하였다. 제백석의 가볍고 귀여운 잠자리는 그 정교함이 극치에 달해 마치 살아있는 듯하다. 서양화 기법과 중국화 기법이 공존하지만 전체적으로 눈에 거스름이 없는 조화로운 작품이다.

〈그림 5〉의 제목은 「창포하취도(菖蒲蝦趣圖)」이며 제백석이 새우를, 서비홍이 창포잎을 그려 함께 완성한 작품이다. 제백석은 새우[蝦] 그림으로 유명한데, 서비홍의 창포잎이 더해져 그 진귀함이 배가 된다. 제백석의 몇 번의 붓놀림으로 완성된 새우의 모습에 생동감이 넘치고, 서비홍의 창포잎은 새우를 돋보이게 해주려는 듯 본연의 생생한 색감을 감춘 채 아련한 빛깔로 흔들리고 있다. 제백석의 자유로운 필체로 쓴 白石 두 글자와 서비홍의 간결하면서도 살아 숨 쉬는 듯한 제시(題詩)가 서로 대비되듯 잘 어울리며, 적절한 위치에 위치한 낙관은 제백석과 서비홍의 뛰어난 공간 이해 능력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눈여겨 볼만한 것은 서비홍이 그린 창포잎이다. 서비홍은 유럽의 정통 서양화를 배웠기 때문에 굽은 선, 빛과 투시효과를 표현하는데 탁



〈그림 5〉 齊白石, 徐悲鴻, 창포하취도 (菖蒲蝦趣圖), 1948年.

월하다. 하지만 “창포하취도”에서 서비홍의 창포잎은 오롯이 제백석의 새우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배경 역할을 할 뿐이다. 어떠한 붉은 선도, 빛, 투시효과도 있지 않다. 낮은 채도의 긴 이파리는 아련하게 흔들리며 수묵의 새우와 대비되면서도 화면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만약 이 화면 속 창포잎의 선이나 색상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면 작품 속 주제가 무엇인지 모호해지며 모든 조화가 깨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림 6〉 齊白石
徐悲鴻, 묘기기미
(妙機其微), 연도 미상

〈그림 6〉은 「묘기기미(妙機其微)」이다. 위 「창포하취도(菖蒲蝦趣圖)」와 전체적인 구도가 비슷한 작품으로, 개구리가 물속 올챙이를 바라보는 모습이 흥미롭다. 제백석이 그린 올챙이와 개구리는 먹을 흙뻑 머금은 붓으로 과감하게 그려낸 것으로 “그림을 그릴 때 닮은 것과 닮지 않은 것 사이에 묘(妙)가 있다. 너무 닮은 것은 세속적이고, 닮지 않은 것은 세상을 속이는 것이다[作畫在似與不似之間為妙, 太似為媚俗, 不似為欺世]”라는 그의 회화철학을 그대로 표현해준다. 서비홍은 배경을 통해 전체 화면의 조화를 꾀하였다. 붉은 배경은 얇고 투명한 붓칠을 겹겹이 쌓아 채웠고, 중간 중간 보이는 초록색 점들은 그 크기와 위치를 적절

히 배치하여 전체 화면 어느 한 곳도 비거나 넘친 곳이 없이 조화롭다. 수면의 물결은 졸(拙)하지만 힘이 있으며, 수묵의 농담(濃淡)으로 원근(遠近)을 표현하였다. 전체적 구도와 색감 배치, 낙관 위치 등을 통하여 화면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마치 한 사람이 그린 그림 같다. 제백석과 서비홍이 작품 안에서 정신적 교류를 통해 서로를 생각하고 위함으로 그린 그림은,

자신의 본심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먼저 그린 사람의 의도를 침범하지 않는 경지를 드러냈다. “어긋나되 침범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지만 같지 않는[違而不犯, 和而不同]” 경지는 인간으로서, 윗사람으로서 혹은 아랫사람으로서, 같은 화가로서 서로를 누구보다도 공경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화가라는 직업을 가진 두 사람 사이의 서로를 ‘공경’함은 그림 속에서 ‘화(和)’의 경지에 이르렀고, 두 사람의 ‘공경’을 통해 이루어진 조화로운 작품은 전통화에 통달한 제백석, 전통화와 서양화의 융합을 추구하는 서비홍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그림이었을 것이고, 관람자에게도 친밀함과 편안함을 제공한다.

5. 결론

본고는 제백석과 서비홍의 사림이 “지기지교”로만 수식되어지는 것이 타당한지, 또 그 사림이 유가의 ‘경(敬)’ 사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지기지교”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둘 사이에 특별한 요소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사림은 30년이 넘는 나이 차이, 서로 다른 성장 환경, 대립하는 화풍 등을 지니고 이어진 사림이었기에 단순히 “지기(知己)”보다 더 깊고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했다. 제백석과 서비홍의 사림을 유가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시도는 선진 유가 경전에 일관되게 흐르며 공자 사상 체계를 관통하고 있는 ‘경’을 선택하게 하였다. 서비홍의 제백석에 대한 적극적인 희생과 베품이 주를 이루는 일화를 바탕으로 한다면 그것은 ‘윗사람’ 혹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로서의 공경으로 설명될 수 있고, 그것은 제백석의 서비홍을 향한 자애(慈愛)와 상호적 관계 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서비홍에 비하면 소극적이었지만, 제백석 역시 서비홍을 아끼고 있었음은 좋은 그

림을 아껴둔 일화, 각(刻)을 선물한 일화, 서비홍을 지기(知己)라 칭한 일화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제백석과 서비홍의 마음[敬]과 행동[恭]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베풀었던 진정한 공경의 사림은 함께 그린 “합작화”에서 ‘화(和)’에 이르러, 서화의 이상적 경지인 “위이불범 화이부동[違而不犯, 和而不同]”을 이루었다.

미술사적으로 작가의 화풍이나 기법, 예술적 가치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작가가 살던 시대 배경이나 미술사적 흐름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만큼 작가의 개인사(個人史)와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합작화는 두 사람 이상의 작가가 한 화면에 시(詩), 서(書), 화(畵), 인(印)을 함께 표현한 것으로, 작가의 개인사와 인간관계 등을 연구한다면 더 깊이 용이하게 해석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역으로 합작화 연구를 통해 작가의 개인사를 연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연구는 부족하며, 있다고 하더라도 선행연구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합작화와 그에 참여한 고대 문인들과 예술가들의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미술의 연구가 더 깊고 풍성해지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何尊銘文』

『周易』

『詩經』

『禮記』

『論語』

『春秋左傳』

『說文解字』
『近思錄集解』

2. 논문

- 권혁석, 「《尙書·堯典》을 단초로 삼아 고찰한 공자의 ‘敬’ 사상」, 『中國文化研究』 제6집, 2005.
- 안희정, 「不安과 憂患意識의 책임론—자기 이해의 지각 단계를 중심으로—」, 『儒教思想文化研究』 第56輯, 2014.
- 이광수, 「中國 근대전환기에서 傳統主義 화가의 繪畫觀—齊白石과 黃賓虹의 화론을 중심으로—」, 韓國文化史學會, 『文化史學』 36, 2011.
- 오제중, 「段玉裁〈說文解字〉의 古今字 이론 고찰」, 한국중국어언어학회, 『中國言語研究』 제73집, 2017.
- 이철승, 「선진 유가에 나타난 ‘어울림’ 사상의 논리구조와 현실적 의미」, 『동양철학연구』 제46집, 2006.
- 장준석, 「徐悲鴻의 美術教育思想에 대한 研究」, 한국조형교육학회, 『조형교육』 제18집, 2001.
- 정연옥, 『제백석의 예술세계에 담긴 평화사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운대학교, 2019.
- 차민경,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화(和)’의 세계관과 상생에 관한 소고」, 중남대학교 유학연구소, 『儒學研究』 제50집, 2020.
- 法蘇恬, 「違而不犯 和而不同——談書法藝術中的“變化”與“和諧”」, 學院文萃, 『中國書畫』 第8輯, 2008.
- 黃宸炎, 「齊白石, 徐悲鴻, 張大千的互“補”往事」, 『中國老年』, 2021.
- 洪曉麗, 『和而不同——中國畫合作畫研究』, 碩士學位論文, 深川大學校, 2019.
- 羅元欣, 「徐悲鴻和齊白石的知己之交—以北京畫院收藏的齊白石遺物爲例」, 『齊白石研究』 第六輯, 2016.
- 梅珍生, 「論孟子的禮學思想」, 『湖南大學學報』 第2期, 2003.
- 孟紅, 「徐悲鴻與齊白石: 詩意情深的畫壇忘年交」, 『山西老年』, 2020.
- 張曉瓊, 「先秦儒家“敬”論研究」, 博士學位論文, 西北大學, 2016.
- 俞婷婷, 「孔子“敬”思想探微」, 『青年文學家』, 第24期, 2020.
- 袁田田, 「“恭敬”, 一詞的發展」, 『科程研究教育』 第26輯, 2012.

3. 단행본

치바이스 지음, 김남희 옮김, 『치바이스가 누구냐 : 중국화 거장이 된 시골

경(敬)으로 본 제백석(齊白石, 1864~1957)과 서비홍(徐悲鴻, 1895~1953)의 사립 215

목수』, 서울: 학고재, 2012.

모종삼著, 김병채外譯, 『모종삼 교수의 중국철학 강의』, (서울 예문서원), 2011.

(투고일: 2022. 11. 10 심사완료일: 2022. 12. 22 게재확정일: 2022. 12. 23)

황은아

소 속: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한국철학과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25-2 퇴계인문관4층 31401호.

전자우편: maddist@naver.com

[Abstract]

On the Communication between Qi Baishi and Xu Beihong from the Perspective of “Jing[敬]”

Hwang, Eun-Ah

This paper begins with the suspicion that the relationship of Qi Baishi and Xu Beihong's was only modified by “friendship of understanding me [知己之交]”, and investigates how their relationship was interpreted as the Confucian thought of “Jing[敬]”. It is becau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had special factors such as the age difference of 31 years, different growth environments, and conflicting painting styles. The attempt to interpret the communication between Qi Baishi and Xu Beihong as a Confucian thought led us to choose the “Jing[敬]” that runs through the advanced Confucian classics. Based on the anecdote of Xu Beihong's active sacrifice and charity to Qi Baishi, it can be interpreted as the “GongJing[恭敬]” of “elders” or “artists living in the same era”, which was formed on the basis of Qi Baishi's “Ci’Ai[慈愛]” and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m. The true respectful relationship between Qi Baishi and Xu Beihong, who thought, cared for, and shared each other with their hearts [敬] and actions[恭], reached “He[和]” in “cooperative painting[合作畫]” which was drawn together, and achieved the ideal state of east-asian paintings, “disobey but no conflict, harmonious but different [違而不犯, 和而不同]”

Key words : Qi Baishi, Xu Beihong, Jing[敬], cooperative painting
[合作畫], harmonious but different[和而不同]